

5

깔뱅의 「기독교 강요」(1559)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최윤배 교수 방선영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잡다한 종교들이 부침했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자리잡음을 하지 못하고 명멸하고 말았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보고 종교가 없는 민족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에 적당한 토양을 제공하였던 것이다.¹⁾ 따라서 한국교회는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 교회사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역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개화기를 거쳐 일제 치하, 그리고 6·25전쟁이라는 회오리바람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희생을 치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처한 상황 속에서

1.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404쪽.

윤리적 가치의 고양, 인권과 자유, 개화와 계몽, 민주화와 산업화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²⁾

그러나 교회의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늘날 어떠한가? 한마디로 소비가 극대화된 물량주의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물량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고, 상품성이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주의화되어도 기독교는 예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역시 교회의 운영을 경영과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바닥으로 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종교지도자들 중에서 목사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룹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화려함 뒤에 가려진 채 극심한 인간소외 현상을 겪으면서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³⁾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 현상과 인간소외 현상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독교 자체 안에서조차 높다. 여기에 대한 교회 간신의 한 방법으로 일부 교회를 주축으로 ‘교회의 날’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⁴⁾ 즉, 성서로 돌아가 교회의 본분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개혁전통의 뿌리를 형성했던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이 주장하는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칼뱅은 그 당시의 도덕과 경제 및 주네브 시의 전반적인 문제에 교회의 책임을 의식하였던 사람이었다. 나아가 칼뱅은 교회의 본질

2. 이상배,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목회와 신학」, 통권 195, (2005. 8).
3. 노용찬, “가장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통권 191, (2005. 5).
4. 「國民日報」, 2005. 9. 14, 30쪽.

과 기능을 성서의 원리로부터 분명히 확정하고, 복음으로 당시의 교회들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칼뱅은 그의 교회론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응하고, 다른 편으로 재세례파의 심각한 도전에 답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신학적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칼뱅에게 있어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에 기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 수단이다. 따라서 복음전파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 보화를 교회에 맡기시고 목사, 교사를 위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다.⁵⁾ 즉,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교회는 수단으로서, 그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선포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논자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논술해 보고자 한다.

2. 교회의 본질

1) 신자(信者)의 어머니로서 교회

칼뱅은 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으로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후기에는 재세례파와의 갈등으로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했다.⁶⁾ 칼뱅은 프랑스 왕인 프란시스 1세(Francis I)에게 드리는 헌정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참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함으로써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김종흡·신윤복·이종성·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8쪽. 이하 뒤에서 사용 시: *Inst. IV i 1.*로 한다.
6.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90쪽.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다.⁷⁾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탱되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방어되고, 그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경건한 신자들이 항상 그를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⁸⁾

칼뱅은 여기서 교회의 공동체성의 연속성을 말한다. 비록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아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고, 중세기를 통해서도 교회의 연속성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저들의 교회관을 비판한다. 첫째, 저들은 교회의 형체를 항상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요, 둘째는 이 형태가 무엇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보좌와 밑에 종속하는 계층 질서적 성직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이와는 반대로,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두 가지 표지(notae ecclesiae=marks of the church)를 가지고

7. *Inst.*,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현사 6, 62쪽.

8. 같은 책.

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루터와 칼뱅을 중심하여」(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교출판부, 1997), 452쪽.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이다.¹⁰⁾

따라서 칼뱅은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집단에 이 표준을 시급석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¹¹⁾ 그렇다고 칼뱅에게 이러한 교회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교회란 “거룩과 완전한 순결을 열심히 갈망하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순결을 인정하신다.”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교회의 완전한 거룩성을 주장하는 재세례파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광적인 자만심보다 의에 대한 그릇된 열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즉시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단정한다.”¹³⁾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남달리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몸을 쓰고 사는 이상 여전히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둘째, 이 은혜는 교회에 속한 것이어서 교회와의 교통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 셋째, 이 은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혹은 복음 선포로 혹은 성례집행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¹⁴⁾

그러나 칼뱅의 교회론은 본질적 측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칼뱅은 교회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10. *Inst.*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현사 6, 62쪽.

11. *Inst.* IV i 11, 24쪽.

12. *Inst.* IV i 17, 32쪽.

13. *Inst.* IV i 13, 27쪽.

14. *Inst.* IV i 22, 37쪽.

15.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90쪽.

칼뱅에게 있어 근본적인 교회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는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로 보았다.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¹⁶⁾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으로부터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다. 적어도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영향과 스트라스부르그의 목회경험을 거친 후 1542년 제2제네바 종교개혁 기간에 접어든 이후였다.¹⁷⁾ 왜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그가 교회를 다룰 때 전통적인 어버이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강한 감정은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¹⁸⁾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지녔으며 또 그에 대응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키프리안(Cyprian, AD 200–256)의 주장을 재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¹⁹⁾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칼뱅에 의하면 한 인간이 아버지에 의해 잉태되고 어머니에게서 낳고 젖을 먹여 길러지고 성장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먼저 교회 안으로 인도된다. 교회 안으로 인도된 성도는 교회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여 양육되고 길러진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16. *Inst.* IV i 4, 13쪽.

1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59쪽.

18. W. J. 부스마,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505쪽.

19. *Inst.*, IV i 1, 8쪽.

된다는 것이다.²⁰⁾ 이런 의미에서 칼뱅에게 교회 이외에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이사야와 요엘이 증거하고 있으며 에스겔도 이에 동조한다.”²¹⁾

그러나 칼뱅의 위와 같은 주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 구원의 은총이 교회 자체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존하는 교회를 공정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의 주의 뜻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로써 칼뱅은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적인 교회론에 나타난 사효론(ex opere operato)을 거부한다. 말씀과 성례전과 이를 섬기는 교역자들은 외적 수단이요, 성령이 내적으로 조명하고 감화할 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인 것이다.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익한 보조 수단임을 체험한다.²²⁾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실지라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능력을 교회의 복음전파에 의해 나타내신다.²³⁾ 반면 우리에게는 ‘겸손의 명예’가 지워져 있다. 우리는 우리

20. 같은 책.

21. *Inst.*, IV i 4, 13쪽.

22. *Inst.*, IV i 1, 8쪽.

23. *Inst.*, IV i 5, 14쪽.

속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가능성들과 신인식에의 단서들을 버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서 있는 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그에게 이끄신다.²⁴⁾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啓示)의 장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였다.²⁵⁾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증언자들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사이에 계시며,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그와 교제하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다.²⁶⁾ 깔뱅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알려지도록 항상 그의 가르침의 거울 안에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²⁷⁾ 이로 보건대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는 말씀의 장(場)이요, 신앙의 출생과 성장의 장일 뿐 아니라 성령의 장이라 할 수 있다.²⁸⁾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본질적으로 깔뱅에게 교회의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이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의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²⁹⁾

교회는 가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 1:13) —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이지만 —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 1:22-23), 한 머리에 의존하며 그들은 또한 몸의 지체들처럼 연합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형성한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³⁰⁾

깔뱅은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15~16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와 그 모임의 주가 되시는 관계를 ‘몸과 머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통일적인 한 기구가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는 각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 유착되어서 우리들 사이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³¹⁾ 그러므로 깔뱅에게 있어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인 통일로,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이 교회가 신도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부됨을 보게 된다.³²⁾ 이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통’이다.³³⁾ 깔뱅은 사돌레토에게 쓴 글에서 “나는 항상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일치를 갈망하는지 증거해 왔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다.³⁴⁾ 깔뱅에 의하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가톨릭’(Catholic)은 주로 ‘범세계적인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이다. 만약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접붙임을 받은 다른 모든 신자들도 하나이다.³⁵⁾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전제로 소집된 것이

24. *Inst.*, IV i 5, 15-16쪽.

25.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3), 184쪽.

26. 같은 책, 183쪽.

27. *Inst.*, IV i 5, 14쪽.

28. 현요한, “깔뱅의 교회론,” 16쪽.

29. 같은 책, 16쪽.

30. *Inst.*, IV i 2, 10쪽.

31. 이종성, 「칼빈」(서울 : 대한기독출판사, 1997), 138쪽.

32.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 187쪽.

33. *Inst.*, IV i 4, 13쪽.

34. W. J. 부스마,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504쪽.

35. T. H. L. 파커, 박희석 역, 「깔뱅 신학의 입문」(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인 것이다.³⁶⁾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는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 은사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나 재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³⁷⁾ 생의 외부적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육신상의 궁핍까지도 함께 나누어 줘야 한다. 깔뱅은 영적인 동시에 내적(內的) 연합뿐만 아니라 외적(外的) 연합도 강조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 서로 나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상이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시민사회와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각 사람의 사유 재산이 허락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³⁸⁾

이것은 깔뱅이 계층구조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의 전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성도들이 상호의존하게 함으로써 파괴적인 주권행사를 제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하의 질서가 존속하려는 것이다.³⁹⁾ 깔뱅에게 있어 교회의 개념이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개념이요, 성도의 교통을 말하지만, 여기서 성도의 교통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주적 교제제도를 통한 교통이다. 깔뱅은 루터를 따라 모든 신자

2001), 183쪽.

36. *Inst.*, IV i 3. 11쪽.

37. 같은 책.

38. 같은 책, 11–12쪽.

39. 벨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칼뱅의 신학」, 188쪽.

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루터와는 달리 교역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⁴⁰⁾ “하나님께서는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무한히 귀한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또 이 질서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하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⁴¹⁾

그리면 깔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유기체적인가? 아니면 제도적인가? 방델에 의하면 깔뱅의 경우 “교회는 우리 밖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미 말한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를 얻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교적·사회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깔뱅은 자신의 여러 주석과 교회에 관한 논문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유기체임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⁴²⁾ 니이젤 역시 깔뱅에게 있어 “교회는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피차에 봉사와 도움을 주는 공동체이다.”라고 하였다.⁴³⁾ 반면, 니이젤은 깔뱅의 교회론을 언급하는 데 있어 ‘인간 안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에 병행하여 지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인정되기 원하신다.”고 함으로써 제도적 측면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⁴⁾ 오토 베버는 깔뱅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개념과 기관으로서의 교회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교인의 공동체는 깔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재(實在)이다. 그러나 직분이 그 공동체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칼뱅은 직분

40. 현요한, “칼뱅의 교회론” 재인용, 18쪽.

41. *Inst.*, IV i 5. 15쪽.

42. 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358쪽.

43. 벨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칼뱅의 신학」, 187쪽.

44. 같은 책, 184쪽.

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 오토의 해석은 결국 깔뱅이 제도적 교회개념으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결론적으로 선택되고 연합되어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정적(靜的)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피차에 봉사와 도움을 주는 공동체이다.⁴⁶⁾

3) 가시적인 동시에 불가시적 교회

깔뱅은 두 가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 즉 불가시적(不可視的) 측면과 가시적(可視的) 측면을 말한다.⁴⁷⁾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조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시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전부를 의미한다. …… 교회를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부른다.”⁴⁸⁾ 깔뱅은 사도신경의 조항 ‘공회를 믿는다’(believe the church)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라서 전치사 ‘in’을 삭제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I believe in God)라고 말하듯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교회를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이다.⁴⁹⁾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며, 믿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⁵⁰⁾

깔뱅은 여기서 교회의 초석이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라고 한다.⁵¹⁾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

이 동요되거나 파멸될 수 없다.” 즉,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는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²⁾ 이때 깔뱅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모임에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의미하지 않는다. 즉, 깔뱅에게 있어 선택론 테두리에서 교회의 가시성·불가시성을 구분했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교회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에서 앗아다가 다른 권력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⁵³⁾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은밀히 선택된 사람은 은밀한 징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휘장을 달고 있어, 무리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기 때문이다.⁵⁴⁾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불가시적 교회는 그 리스도의 몸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이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기는 니이젤이 깔뱅이 교회의 정의를 위하여 두드러지게 사용한 선택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⁵⁵⁾고 지적하고 있지만, 반면에 오토는 깔뱅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 그의 교회론 속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께서는 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께서는 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⁶⁾ 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을 깔뱅이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모른다.”⁵⁶⁾

이것이 깔뱅에게 있어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깔뱅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대립하여 불가시적 교회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의 실체는 하나님께 주이시며,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준다고 니이젤은 말한다.⁵⁷⁾ “깔뱅

45. Otto Weber, 김재성 역, 「깔뱅의 교회관」(서울: 이례서원, 2001), 64쪽.

46. 빌헬름 니이젤 저,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 187쪽.

47.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 290쪽.

48. *Inst.*, IV i 3, 11쪽.

49. T. H. L. 파커, 박희석 역, 「깔뱅 신학의 입문」, 183쪽.

50. *Inst.*, IV i 2, 9쪽.

51. 이형기, 「종교개혁사상」, 454쪽.

52. *Inst.*, IV i 2, 9쪽.

53.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 190쪽.

54. 같은 책.

55. 이형기, 「종교개혁사상」, 455쪽.

56.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44쪽.

57.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 191쪽.

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만의 교회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시적 교회를 기준 삼아 가시적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준다.”⁵⁸⁾ 이렇게 영적인 특성을 지니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종할 의무를 가진 교회라면 유형적 교회가 안 될 수 없다.⁵⁹⁾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는 혼합될 수는 없으나 통일성을 지닌 둘이 하나님인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휘장을 달고 있는 자요, 작은 무리며, 밀알인 선택된 자들은 그 유비(analogia)의 대상들과 구별이 가능한 것인가? 오토 베버에 의하면 이에 대해 칼뱅은 회의적이었다.⁶⁰⁾ 그는 칼뱅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각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추상적인 요구가 없는 개인적인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믿는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배제된다.⁶¹⁾ “우리는 베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⁶²⁾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인식론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시다. 따라서 “칼뱅은 이러한 견해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의 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1537년 파렐과 칼뱅이 제네바의 주민들에게 「제1제네바 신앙고백서」(Erste Genfer Bekenntnis)를 받아들인다는 선서를 하게 하려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오토 베버는 말한다.⁶³⁾ 칼뱅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

58. 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360쪽.

59. 이종성, 「칼빈」(서울 : 대한기독출판사, 1997), 139쪽.

60.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44쪽.

61. 같은 책, 46쪽.

62. Inst., IV i 8, 21쪽.

63. Inst., IV i 3, 13쪽.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원이 될 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나눠 받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것이다.”⁶⁴⁾ 이것은 어두워진 우리의 눈으로 불가시적 교회를 구별해 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확신이지, 자신 스스로가 불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누가 그의 자녀로 선택될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다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적응시켜 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신 사랑의 판단으로 대처하셨으며, 그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⁶⁵⁾

이러므로 이양호가 인용한 워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중심이 하나님 두 개의 동심원에서 “선택의 원이 교회 전체 원을 포함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최대한 팽팽해진다.”⁶⁶⁾ 한편 교회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이 섞여 있는 가시적 교회⁶⁷⁾

64.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47쪽.

65. Inst., IV i 7, 20쪽.

66.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67. Inst., IV i 7, 20쪽.

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이해력에 미치지 못하는 불가시적 교회를 존중해야 할 것을 깔뱅은 강조한다.⁶⁸⁾ 깔뱅에게 있어서 교회의 두 양상을 인식하지만 자신이 이 둘을 분간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식하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보다 더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힘껏 봉사했다는 것이다.⁶⁹⁾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인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깔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의 손상을 입지 않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자들이 잔존하는 교회와도 끊임없이 교통을 지속해야 한다.⁷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봄된 교회에 분명한 표지(表紙)를 주셨기 때문이다.

4) 삼위일체론적 교회

깔뱅의 경우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된다. 깔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이다.⁷¹⁾ 그는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 선택의 교리에 초점을 두고 그의 첫 작품인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1559년 판 「기독교 강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증을 갖게 된다.⁷²⁾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의 몸으로 자라 가는 것이다. 이에 오토 베버가 말했던 것처럼 바르트가 강조했던 예정의 기독론적인 이해를 우리는 깔뱅에게서 볼 수 있다.⁷³⁾ 바르트는 그리스도론에 종속된 교회론을 펼치는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듯이 그리스도론이 없다면 교회론도 없다.”는 것이다.⁷⁴⁾ 그의 이중예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예정으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원한 선택으로”⁷⁵⁾ 보고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는 그 이중 형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에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다.”⁷⁶⁾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하도록 보존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⁷⁾ 몰트만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기초요, 힘과 희망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의 음성만이 들려질 때 교회는 진리 속에 있고 자유하게 되며, 세상에 있어서 해방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체가 될 때 교회론(Ekklesologie)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⁷⁸⁾ 몰트만에게 있어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사는 것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⁷⁹⁾ 그래서 우리는 20세기의 신학을 대표하는 칼 바르트와 몰트만의 교회론 속에서도 일찍이 주장되어진 깔뱅의 삼위일체론적 교회이해를 보게

68. 같은 책.

69. 존 칼빈 포드 베틀즈 서론,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원역)」(서울 : 크리스챤라이브스터, 2002), 139쪽.

70.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50쪽.

71. 같은 책, 45쪽.

72. 이형기, 「종교개혁사상」, 454쪽.

73.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45쪽.

74.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서울 : 한들 출판사, 2000), 253쪽.

75. 같은 책, 187쪽.

76. 같은 책, 188쪽.

77. 같은 책, 200쪽.

78. 위르겐 몰트만, 박봉랑 외 3인 공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1), 20~21쪽.

79. 위르겐 몰트만, 박봉랑 외 3인 공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60쪽.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결국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해 있다. …… 둘째로, 교회는 영원불변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 ……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많은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와 분깃을 받아서 구별된 자가 되었다.⁸⁰⁾

그러므로 여기서 깔뱅의 교회가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란 “천사들이나 사람들,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나 아직 살아 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서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간에 선택받은 무리의 총수이다.”⁸¹⁾ 이것은 깔뱅이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 온 다른 하나의 사상에서 그 의미를 감소시키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⁸²⁾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선택론과 결부된 깔뱅의 교회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 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⁸³⁾ 깔뱅에 의하면, 우리는 이성과 생각으로 사변이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정초를 지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져도 튼튼히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선 신의 선택에 근거하며 그의 영원한 섭리가 그러하듯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⁸⁴⁾ 이런 의미에서 나이젤의 언급처럼 선택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80.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81. 존 칼빈, 포드 베틀즈 서론,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 139쪽.
 82. 벨헬름 나이젤 저, 이종성 역, 「깔뱅의 신학」, 189쪽.
 83. IV i 2, 10쪽.
 84. IV i 3, 12쪽.

3. 맷음말

깔뱅이 「기독교 강요」 IV권에 그의 교회론을 할애할 만큼 깔뱅의 교회론은 그의 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신학자로서 그의 이론적인 탁월성과 함께 교회의 목회적 실천성이 돋보인다. 그의 교회론은 논쟁 속에 탄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게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많은 논쟁자들이 있었다. 성찬론을 중심으로 루터파, 특히 베스트팔파의 논쟁이 있었으며, 계(언)약과 유아세례를 중심으로 재세례파와의 논쟁, 그리고 교회 치리와 윤리 중심으로 소위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도 깔뱅은 1541년 「제네바 교회법」을 통과시켰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1554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네바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깔뱅의 경우, 본질적으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가시적인 동시에 불가시적인 교회이며, 삼위일체론적 교회이다.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자들을 품어 주고 용서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따라서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 교통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이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어 간다. 그리하여 다양한 은사를 질서 있게 부여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불가시적 교회와 사악한 자들을 포함하는 가시적 교회로 구별한다. 이것은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에 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불가시적 교회를 대립시키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이처럼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를 추구해 간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택된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이다.

다음으로 깔뱅의 교회론은 당시 상황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도, 성경주석과 교회의 전통, 특히 어거스틴과 마르틴 부처의 사상을 통해서 정립시켰다. 그는 1536년에 어거스틴의 개념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불가시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 후 1539년 초 부처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가시적인 측면을 발전시켰으며, 이 같은 발전이 「기독교 강요」 1543년 판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결과 깔뱅에게 있어 “최상의 교회는 산 자든 죽은 자든지 간에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불가시적인(무형) 교회이지만, 이외에도 교회는 우리들의 지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하는 가시적 교회이다.”⁸⁵⁾ 따라서 깔뱅의 교회 이해는 어머니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가시적이면서도 불가시적인 교회, 성도의 교통과 교제로서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 마지막으로 깔뱅에게 있어 교회론은 변증적이다. 그는 ‘중도의 길’(via media)의 방법을 통해서 우측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좌측의 열광주의자들(재세례파 또는 자유주의파)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전자에 대하여는 초기에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후기에 와서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교회론에서 두 가지 측면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이상의 깔뱅의 교회론의 훌륭한 유산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주체는 과연 평신도인가 아니면 목회자인가? 깔뱅의 경우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85. 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 크리스챤라이브스터, 2001), 359쪽.

말씀이시며, 그의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삼위일체적 교회의 본질을 깊이 숙고해야 하겠다. 깔뱅의 신학은 물론 깔뱅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경적 예배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설교를 해야 하고, 말씀에 근거한 성례전을 자주 베풀어야 하며 유명무실화한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복음적 설교란 철저한 복음적 사상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이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인간학적 측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원죄와 전적 타락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총 사건에서만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범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다. 성례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 성례전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 목회적 실천이 요구된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라 말씀에 종속된 다른 형태의 보이는 말씀이다. 교회의 신비를 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깔뱅이 맛보았던 성례의 깊은 은혜가 교회에서 되살아나야 한다. 성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는 자리이다. 성례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갔음을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확증하고 보증하는 자리이다. 성례의 자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이다. 이러한 말씀 선포와 성례가 있는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회실천의 원동력을 이룬 깔뱅의 성령중심적 사상과 같이 모름지기 영적인 사역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이다. 교회와 사회의 신앙적 삶은 영적인 삶으로서 영적 전투에로 부름을 받는 삶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과 제도가 해체되는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깔뱅의 교훈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질서(ordo)와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ordo Dei)이며, 질서와 성령의 은사는 함께 가면서 무질서를 초래하는 교회와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처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갈래로 분열된 한국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일치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oecumenicus)인 깔뱅의 정신에 따라, 신앙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깔뱅의 음성에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적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 한들출판사, 2000.
 이형기·임희국·최윤배·홍지훈.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이양호. 「칼빈 : 생애와 사상」. 천안 : 한국신학연구소, 1997.
 이장식. 「교회의 본질과 교회개혁」.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이종성. 「칼빈」. 서울 : 대한기독출판사, 1997.
 최윤배(책임편집). 「어거스틴, 루터, 깔뱅, 오늘의 개혁 교회」. 2004.
 존 칼빈, 포드 베틀즈 서론.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 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2.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V*, 김종흡·

- 신윤복·이종성·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0.
 T. H. L 파커. 박희석 역. 「칼빈 신학 입문」. 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Wilhelm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3.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재성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 이레서원, 2001.
 W. J. 부스마. 이양호·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위르겐 몰트만, 박봉랑 외 3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1.

2. 논문

-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최정술. "칼빈의 교회론과 세속화된 현대교회의 진로." 미간행 신학석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6.
 현요한. "칼빈의 교회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

3. 기타

- 최윤배. "칼빈 - 그의 생애와 사상." 강의안, 2003.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강의안, 2005.
 이상배.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목회와 신학」. 통권 195 (2005. 8).
 노용찬. "가정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통권 191(2005. 5).
 「國民日報」, 2005. 9. 14, 30쪽.